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보감회와公安부, 보험범죄 퇴치 위해 공조 강화

-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회)는 최근 중국 보험업계에 만연되고 있는 이른바 ‘3대 짝퉁(三假- 가짜 보험회사 · 계약서 · 지급보험금)’에 대한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근절 의지를 재천명함.
 - 중국公安부(이하公安부)와 공동으로 단속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(가짜 보험회사 23건, 가짜 보험계약서 4건, 가짜 지급보험금 15건)을 적발한 보감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법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보험시장의 질서 유지와 건전한 발전을 심각하게 위해하고 있는 보험범죄 및 3대 짝퉁을 하반기 중점 관리감독 사항으로 삼을 것을 강조함.
 - 저장성(浙江省)에서는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는 의외상해보험(意外伤害保險) 계약서 10만장이 적발되었으며, 장수성(江苏省)의 경우에도 보험사고 및 보험범죄와 관련된 피해액이 천 만위안이 넘는 것으로 밝혀짐.
 - 수도 베이징에서도 보감회의 허가 없이 보험회사를 설립해 이 회사 명의로 가짜 보험계약서를 발행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혀 법원에서 불법수입 전액 추징, 벌금 5천 위안 및 유기징역 5년을 선고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중국 전역에서 보험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.
- 보감회와公安부는 3대 짝퉁 등 보험범죄 퇴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함.
 - 최근 보감회는公安부와 공동으로 <보험업 불법 범죄행위에 대한 공조체제 강화 관한 통지>를 발표하고 보험 관련 범죄의 퇴치를 위해 서로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.
 - 이 합의문에 따라 전국에 있는 각 급 보험감독 및公安기관들은 상호간 정보교류와 조사협조, 업무연락, 상황통보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위해 현재보다 한층 강화되고 유기적인 행정 및 법집행 체제를 구축하기로 함.

(중국보감회 홈페이지 · 21세기경제보도, 8/13)